

그림자 너머

이소영 글·그림



주제	있는 그대로의 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권장 차시	7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나다움, 자아, 욕구, 생각, 마음, 행복, 독서 토론, 색모래 테라리움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6도01-02] 자주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주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방법을 익힌다. 미술 [6미02-04] 조형원리(비례, 율동, 강조, 반복, 통일, 균형, 대비, 점증·점이, 조화, 변화, 동세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 의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작성	창원 월성초등학교 이민지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그림자 너머』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지식 충전 위주의 삶을 사는 현실 속의 자신을 ‘머리’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가고 싶은 곳을 아는 진정한 내면인 참 자아는 ‘몸통’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머리가 현실에 대해 답답해하며 의문을 가질 때 몸통은 머리를 어둠에 가려진 그림자 너머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림자가 ‘나’에 의해 만들어지듯이 그림자 너머의 세계 또한 ‘나’로 인해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 속에서 머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다양한 마음들과 마주합니다. 작가는 욕심과 외로움, 불안과 싸우고 갈등하는 것 또한 마음의 일부라고 말하며 그들과 머리의 만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쫓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머리를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그 마음들은 현실세계에서 머리를 키워온 마음들이었습니다. 머리는 자신을 누르는 그 마음들을 뿌리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자 너머의 세계에서 가장 고요한 곳에 다닙니다. 그 곳에서는 조그마한 몸통이 환한 빛으로 머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은 서로가 별개의 존재가 아닌 하나의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서로가 합일됨으로써 완전해진 걸모습만큼이나 그들은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나’의 존재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 학습 목표

-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생각과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구분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 책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독서 토론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 조형원리를 이용하여 색모래 테라리움 꾸미기를 할 수 있다.
-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알고 나를 격려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

■ 수업 준비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나의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이 수업을 준비했다.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그 마음들 모두 자기에게서 솟아난 자연스러운 마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인 관습, 집단 무의식, 교육, 학습 등으로 외부에서 주입되거나 강요된 ‘~해야 한다.’의 생각과 타고난 개인적 기질과 본연에서 우러난 ‘~하고 싶다.’의 진정한 마음이다. 이 두 가지는 애써 구분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뒤섞여 버린다. 그러면 생각마저 진정한 마음이라 여겨 따르려 애쓰다 오히려 진정한 마음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며 결국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지닌 삶을 살 경우가 있다.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생각과 진정한 마음 구분하기, ‘~해야 한다.’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고 싶다.’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기로 수업을 준비해 보았다. 다양한 독서 토론과 색모래 테라리움 활동은 아이들의 진정한 마음을 찾고 나다움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 예상된다. 이 수업이 아이들의 진정한 삶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고대한다.

수업 준비물

활동지, 포스트잇, 색모래, 다육식물, 유리용기(일회용 음료 용기)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p>내용 예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 면지 속 인물의 감정 살펴보기 	1차시
읽는 중	<p>내용 파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읽기 - 글과 그림 같이 읽기 - 질문에 답하며 내용 파악하기 	2차시
	<p>독서 토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석맵 독서 토론하기 - 마음 살피기 - 마음 내려놓기 	2차시
읽은 후	<p>색모래 테라리움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 종이에 쓰기 - 색모래 한층 마다 종이를 끼워 넣고 테라리움 완성하기 	1차시
	<p>편지 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나'에게 격려하는 편지 쓰기 	1차시

읽기 전

1. 내용 예상하기


■ 책 제목과 작가 이름, 출판사 소개하기

■ 앞뒤 표지 펼친 그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그림자 너머』입니다.
- 앞뒤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머리와 다리가 떨어져 있어요.
제목이 『그림자 너머』라서 그림자 너머의 세상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 같아요.
다리와 머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 이상하게 느껴져서 책 내용이 궁금해요.
머리에 손이 달려 있고 다리는 빛이 나는데 머리가 다리를 따라가요.
표지의 황금색 무늬가 신비롭게 느껴져요.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어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면지 살펴보기

- 첫 번째 면지에는 팔이 달린 머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예: 머리에 붙은 팔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팔이 날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 같아요.
- 표현은 '뛰어간다', '날아간다'로 다르지만 어디로 가고 있다는 점은 같군요.
- 그다음 면지에는 12개의 머리가 나옵니다. 각각의 머리를 살펴보고 어울리는 감정을 써 봅시다.

			
예) 당황하다, 불안하다.	예) 열심이다, 평안하다	예) 흥미롭다, 궁금하다.	예) 조급하다, 짜증 난다.
			
예) 힘들다, 지친다.	예) 당황하다, 놀란다.	예) 긴장하다, 용기 있다.	예) 열정적이다, 자랑스럽다.
			
예) 화가 난다, 분노하다.	예) 어렵다, 미안하다.	예) 막막하다, 의아하다.	예) 피곤하다, 지루하다.

1. 내용 파악하기

■ 글 읽기

- 그림책에 나오는 글만 먼저 읽어 봅시다.

-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머리가 그림자에 난 구멍을 따라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마음을 만납니다.

다른 머리와 다른 선택을 한 주인공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 자유로워 집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마음, 손해 보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마음들은 주인공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을 힘겹게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니 주인공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 그림책을 읽고 전체 내용 파악하기

- 누가 등장하나요?

예: 팔이 달린 머리와 다리가 달린 몸통이 등장합니다.

다른 여러 몸통과 머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뜻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몸통이 등장합니다.

- 그림자를 발견한 머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림자에 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와”소리를 듣고 들어갑니다.

-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머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 몸통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몸통은 각각의 마음들이에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마음, 손해 보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몸통을 더 열심히 살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 그런 마음들을 만났을 때 머리는 어떤 기분을 느꼈나요?

예: 처음에는 반가워했는데 나중에는 힘들어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더 열심히 살게 하려는 마음들은 머리에 구멍을 내버렸어요

- 마음들이 쫓아와 머리를 눌렀을 때 머리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 갑갑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고 벗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 머리와 몸통의 색에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머리는 파랗게, 몸통은 주황색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둘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되는 색을 선택한 거 같아요.

- 머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마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손해 보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도 있어요.

허전해서 살 수 없는 마음도 있어요.

머리를 다양하게 더 열심히 살게 하는 마음도 있어요.

- 머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예: 머리를 내리눌렀던 여러 마음을 벗어나니 편안함을 느꼈어요.

머리를 내리눌렀던 마음이 가라앉자 편안함을 느꼈어요.

- 몸통이 머리를 붙렸고 둘은 다시 만납니다. 둘이 헤어질 이유는 뭘까요?

예: 머리의 커지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머리 때문에 몸통이 작아지고 빛을 잃었습니다.

- 다시 만난 몸통과 머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 둘은 하나로 합쳐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유로운 삶을 살자고 해요.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요.

2. 독서 토론하기

■ 보석맵 독서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금한 점,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 점 등으로 가운데 칸에 질문을 씁니다. - 친구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씁니다. - 이때 서로 색이 다른 펜을 사용하면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 완성된 보석맵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를 합니다. 	
--	--

■ 마음 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머리 쪽에 붙여 봅시다. - 걱정, 고민, 욕심, 욕망, 부담감, 책임감 등에 관련된 내용이겠지요. <p>예: 공부를 잘해야 한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친구들 휴대폰이 최신형이 부럽다. 엄마가 나에게만 잔소리를 한다.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고 하신다. 학원 숙제가 너무 많다. 학원을 하루에 세 개씩 다닌다.</p>	
--	--

■ 마음 내려놓기

- 모둠 친구들이 마음 살피기에 쓴 생각들 중 비슷한 것 끼리 묶어봅니다.
- 이 중 가장 공감되는 것 한 가지 뽑습니다. (한 가지만 뽑기 어려우면 두 가지도 좋아요)
- 뽑은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의논해봅시다.
- 또는 무거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 모둠 친구 중 한 명이 나와서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읽은 후

1. 색모래 테라리움 활동하기

■ 준비물

- 다육식물, 색모래, 피규어, 유리용기

■ 만드는 방법

- 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을 종이에 쓴다.
- ② 첫 번째 색모래를 물결무늬로 넣는다.
- ③ 색모래 사이에 종이를 넣는다.
- ④ 두 번째 색모래를 물결무늬로 넣는다.
- ⑤ 가운데 구멍을 파고 다육식물을 심는다.
- ⑥ 피규어로 장식한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한다

공부하기 싫다

동생이 귀찮다

학원 가기 싫다



Tip. '테라리움'은 유리용기에 식물을 키우는 것을 지칭합니다.

유리용기 대신 일회용 음료 용기를 활용해도 됩니다.

자연을 손으로 느끼는 활동은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다육식물을 돌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육식물은 공기 정화와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화, 울동, 점층, 대칭, 균형 등의 조형원리를 적용하면 다양한 색모래 쌓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편지 쓰기

■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p>00이에게</p> <p>어제 엄마에게 혼나서 많이 속상했지? 오빠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는 엄마의 말 때문에 말이야. 자주 듣는 말인데도 들을 때마다 속상해. 그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아서 그러잖아도 속상한데 말이야. 00아. 그럴 때는 오빠보다 잘하는 것을 찾아보자. 너는 오빠보다 노래랑 춤을 더 잘 추지? 그리고 그림도 오빠보다 잘 그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빠랑 엄마가 비교하면 속으로 ‘나는 노래 잘해, 나는 춤 잘 춰. 나는 그림을 잘 그려.’라고 말하자. 입 밖으로는 말하지 말자 그러면 엄마가 더 혼낼 거야.</p> <p style="text-align: right;">너를 가장 사랑하는 00이가 씀.</p>	<p>△△에게</p> <p>■■가 새 휴대폰 산거 보니 무척 부럽지? 부러운 마음에 한 번 만져보자 했는데 치사하게 ■■가 손도 못 대게 해서 더 속상하기도 했지? 나는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전화와 문자만 되는 휴대폰이었지만 처음 네 휴대폰이 생겼을 때는 떨 듯이 기뻐했는데 친구들에게 자랑하자 구렸다고 해서 바로 속상해졌지. 그때부터 너는 네 휴대폰이 싫어졌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임도 되고 SNS도 되는 휴대폰이 갖고 싶어졌지. 휴~ △△야. 물건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을 거야. 휴대폰이 생겼을 때는 좋았다가 금방 다른 휴대폰에 마음이 간 것처럼. 환경오염도 심한데 네가 휴대폰을 오래 쓰면 환경이 보존되는 것이니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새 휴대폰에 대한 마음을 접자.</p> <p style="text-align: right;">△△가 씀</p>
--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진짜 내 소원 이선미 (지은이)

아이가 호리병을 문지르자, 소원을 들어준다는 지니가 나타나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지요. 첫 번째 소원으로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1등을 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입니다. 소원의 주인이 엄마였네요. 두 번째 소원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아빠가 새 차를 사게 됩니다. 그 또한 아이의 진짜 소원은 아니었던 거죠.

지니는 진짜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서 너에 대해 잘 알아야만 진짜 네 소원을 알 수 있다고 조언해줍니다. 좋아하는 꽃, 색깔, 음악 또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면서요.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세 번째 소원은 일 년 뒤에 말하겠다고 합니다. 일 년이 지난 뒤 아이는 세 번째 소원을 말하러 지니를 부르는데…….

과연 아이의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나다움 #자아 #소원 #소망 #행복 #표현

